

## 위암환자에서 림프절 Micrometastasis의 임상적 의의

원자력병원 외과, 해부병리과, 임상의학 연구실<sup>1</sup>

김남철, 문난모, 백남선, 최동욱, 방호윤, 이승숙<sup>1</sup>, 박선후<sup>1</sup>, 최수용<sup>1</sup>, 이종인

(배경 및 목적) 위암은 우리 나라 암 발생률 및 암 관련 사망률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암의 림프절 전이는 암의 재발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림프절 전이는 위암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림프절 전이의 진단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림프절의 크기에 따른 진단, 전통적인 hemisection 후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을 하는 법, 림프절의 multiple section 후 H&E 염색법, 그리고, 최근의 분자생물학적 진단법, 면역조직학적 염색법 등이 있다. 전통적인 진단방법(H&E)에 간과된 림프절 전이가 분자생물학적 진단법 혹은 면역조직 염색법에 의하여 진단되는 것을 미소전이로 정의할 때 이러한 미소전이의 의의를 위암환자에서 알아보고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원자력병원 일반외과에서 위선암으로 진단되어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고 추적이 가능하였던 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미소전이와 다른 임상, 병리학적 예후인자와의 관계 그리고, 예후에 대한 영향을 후향적으로 연구 분석 하였다.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조기위암(T1N0M0) 환자 20명, 진행성위암(T3N0M0)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hemisection에 가장 가까운 파라핀 block에서 4 micrometer 간격으로 두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한 장은 cytokeratin에 대한 면역조직학적 염색을 하고 다른 한 장은 H&E 염색을 한후 서로 비교하여 면역조직학적 염색에 전이의 소견이 보이는 것을 미소전이 양성으로 판독하였다. 총 882개의 림프절(환자당 평균 14.2개)을 대상으로 review 하였고 생존율은 Kaplan-Meier법에 의하여 구하고, 예후인자끼리의 비교는 student t-test로 하였다. 생존율 비교는 Log-Rank, 단변량 및 다변량 비교는 Cox regression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전체적인 미소전이 양성률은 조기위암 환자에서는 28.6% (6/20), 진행성위암에서는 42.9% (18/42) 이었다. 조기위암에서 typeIIc의 양성률이 더 높은 것을 제외한 다른 임상예후인자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었다. 진행성 혹은 조기위암 모두에서 미소전이 양성군과 음성군 사이의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비록 증례수가 많지는 않으나 미소전이 양성인 환자의 예후는 음성인 환자과 차이가 없었다 림프절의 미소전이의 예후인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좀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